

# 이상동 회장 당선 무효에...광주시체육회 '전전공공'

### 광주지법 "보궐선거 선거인단 정족수 300명 미달 잘못" 판결 이 회장 직무정지 상태...시체육회 항소 땀 지휘부 공백 장기화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대형 현안 추진 차질 우려

법원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 시체육회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지난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 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전 회장 등이 문제 삼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시체육회는 우선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확한 내용 파악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체육회 상임위원회, 이사회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법적대응의 관건은 항소의 실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재판을 2심까지 끌고갈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지난 7월16일 이번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어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는 광주시체육회, 가처분 신청사건의 피고는 이상동 체육회장이지만 '대한체육회가 정한 선거인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쟁점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체육회의 항소 결정에는 상당한 부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임원 등의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동 체육회장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육회 사무처의 잘못으로 회장 공백상태가 초래된 마당에 자칫 소송이 장기화하면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상동 시체육회장은 법원이 직무정지 금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지난 7월16일부터 직무 정지 상태다. 현재 시체육회는 김광아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지휘부 공백상태가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체육회의 대형 현안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광주체육과 광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현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체육회의 파행이 지속되는 것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지난 5월 21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월13일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보궐선거를 치러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상동 후보는 유효표(274표) 가운데 132표를 획득, 당선됐으며 전갑수 후보는 110표를 얻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남구청 이승윤, 아시아양궁선수권 '3관왕'

### 광주여대 입학하는 오예진 여자 단체 결승전서 금메달

광주 남구청 이승윤이 2021 아시아양궁선수권 대회 3관왕에 올랐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은 지난 19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우탁(인천제양구청)을 세트스코어 7-3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승윤은 앞서 한우탁, 김필중(한체대)과 팀을 이룬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6-2로 꺾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예선전을 1위로 통과한 이승윤은 유수정(현대백화점)과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전에서도 방글라데시를 6-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윤은 올해 국가대표로 뽑혔으나 최종 선발전에서 아쉽게 4위를 차지해 2020 도쿄올림픽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오는 2022 황제우 아시안게임에 도전하는 이승윤은 대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상태다. 이승윤은 "2년 만에 출전하는 국제대회라 다소 긴장은 됐지만 올림픽 무대에 섰던 경험과 느낌을 살려 매 경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방역 등 경기 외적인 부분이 경기력에 다소 부담도 됐지만, 선수단 모두 태극궁사라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돼 경기에만 집중,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윤은 "대회 출전이 결정되고 김병내 남구청장, 남구청 임직원, 팀 동료, 가족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줘 큰 힘이 됐다. 광주 남자 양궁을 대표한



이승윤이 지난 19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제공>

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많은 바 역할을 다하고 싶다"며 "이제부터는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대비, 동계훈련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리커브 개인전에 걸린 메달을 싹쓸이 했다. 내년 광주여대에 입학하는 오예진(울산스포츠과학고)은 유수정, 임해진(대전시청)과 팀을 이뤄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인도를 6-0으로 꺾고 한국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녀 개인전은 각 4명이 모두 준결승전에 진출하며 한국 양궁 대표선발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임해진(대전시청)이 유수정을 7-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리커브에 걸린 5개의 메달을 모두 수확했다. 한편,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리커브 5개, 컴파운드 4개 등 금메달을 포함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광주여대·순천대 양궁 단체전 동메달

###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조선대, 광주여대, 순천대가 광주여대총장배 제24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승준, 이진용, 김정훈, 이원주가 팀을 이룬 조선대는 지난 19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남부 대학부 단체전 8강에서 안동대에 세트스코어 6-0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배재대에 4-5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에이스 안산이 출전하지 않은 광주여대는 이세현, 김민서, 최예진, 박나운이 팀을 이뤄 한체대를 5-4로 꺾고 4강에 진출, 금메달을 노렸으나 북병경희대에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강수빈, 박지현, 장인서가 팀을 이룬 순천대도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상현과 강수빈이 호흡을 맞춘 순천대는 시·도 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대회는 추운 날씨로 인해 선수 보호차원에서 야외 잔디구장이 아닌 실내대회로 치러졌다. 선수들은 18m 거리별 예선전(3발 10회)을 4회 치른 후 토너먼트로 순위를 가렸다. 거리별 예선에서는 광주여대 김민서가 3차에서 금메달, 조선대 김정훈이 1차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한편, 김수홍(인천대 3)과 김어진(목원대 3)이 남녀 개인전 우승, 경희대와 배재대가 남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은 서울팀이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차세대 한국 양궁을 짊어질 전국 19개 대학교 2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대학양궁선수들



한철리 로우 총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럭비 7인제 대표팀이 2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1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에서 준우승을 하며 17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합뉴스

# 한국 럭비 일냈다

### 아시아 최강 일본 꺾고 17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

한국 남자 럭비 7인제 대표팀이 17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찰리 로우 총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1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 결승에서 홍콩에 7-33으로 패했다.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홍콩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하며 준우승에 만족했다.

한국은 비록 우승은 실패했으나 홍콩과 더불어 이번 대회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2022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세븐스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한국 럭비가 7인제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건 2005년 홍콩 대회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조 2위로 4강에 오른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21-14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이 일본을 꺾은 것은 2017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세븐스 시리즈 2차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연합뉴스

한국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에 당했던 19-31 패배도 설욕했다. 당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11-12위 결정전에서 일본에 석패하며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일본은 럭비 등록 선수만 10만명 이상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기준 등록선수가 1천명이 채 안 된다.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다. 한국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기적을 썼다. 반면 일본은 8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 좌절됐다. 4년마다 열리는 7인제 월드컵은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전 세계 24개국 이 참가한다. 한국은 2005년 홍콩 대회에서 최하위인 공동 2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터널스
- 2관 이터널스
- 3관 둔, 프렌치 디스패치, 강릉
- 4관 장르만 로맨스
- 5관 이터널스, 디어 에반 헨스
- 6관 장르만 로맨스
- 9관 둔, 아담스 패밀리2
- 7관 씨네키틀: 디어 에반 헨스, 둔, 후렛츠 웨슬리, 송해 1927,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 8관 씨네키틀: 디어 에반 헨스, 프렌치 디스패치, 귀멸의 칼날: 남매의 인, 고장난 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2021.11.25(목)-27(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11.28(일)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